

신라 경덕왕대 백제 고지 정책의 시행과 그 배경

金康勳*

I. 머리말	IV. 신라의 발해 인식 변화와 백제 고지
II. 향덕에 대한 효행 포상 기록 검토	정책의 시행
III. 熊川州停 장군 3인 加置 기사 검토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 경덕왕대 백제 고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책을 검토하고, 그것의 시행 배경을 신라인의 발해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신라 지배층은 발해에 대해 말갈이 주도하여 건국한 국가로 인식하였는데, 752년 김태림이 이끈 대일 사절단이 귀국하면서 발해를 고구려계승국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왕정에 확대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발해에서 시작하여 일본을 거쳐 신라로 유입된 것이다. 신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던 백제 고지 지역민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아 백제부흥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웅천주정에 장군 3인을 두어 반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반란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렸으며, 효행을 실천한 향덕을 포상하여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였다. 경덕왕은 통제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여 백제 고지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 경덕왕, 웅천주, 향덕, 웅천주정, 백제 고지, 신라의 발해 인식

* 구미중학교 교사

I. 머리말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직면하여 웅진성으로 피신하였으나, 예씨 일족에게 이끌려 660년 7월 18일 사비성에 주둔 중이던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¹⁾ 648년 당 태종과 김춘추가 맺은 영토 분할 약정에 근거한다면,²⁾ 백제 고지는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당은 기미 지배라는 방식으로 백제 고지를 영유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구나 백제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저항에 나섰기에, 신라의 백제 고지 지배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백제 부흥 세력, 웅진도독부, 당군과 대결하면서 점차 백제 고지를 확보해 갔다. 676년 2월 웅진도독부가 요동반도의 건안성으로 옮겨가고³⁾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⁴⁾ 이후 한반도에서 당군의 자취가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백제 고지는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9주제가 완비되면서 백제 고지는 熊川州·完山州·武珍州로 재편되었다.

지금까지 신라가 백제 고지와 백제 유민을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 군사조직의 개편, 제의체계의 정비, 지방통치조직의 개편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⁵⁾ 최근에는 시기별·단계별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도 있어 주목된다.⁶⁾ 앞선 연구에 힘입어 백제 고지와 유민에 대한 지배 정책의 실상이

-
- 1) 권덕영, 「백제 유민 禰氏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20~23면.
 - 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26일, “大王報書云. 先王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 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 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 非我所貪, 玉帛子女, 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 3)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의봉 원년 2월 갑술,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東官者, 悉罷之. 徙熊津都督府於建安故城, 其百濟戶口先徙於徐兗等州者, 皆置於建安.”
 - 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6년 11월, “沙飡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 5)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盧重國,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1988(「신라의 백제 옛 땅 지배」,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일조각, 2003 재수록); 金壽泰, 「新羅 文武王代의 對服屬民 政策」,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1999(a); 김선숙, 「統一新羅時代 地方行政體制下의 高句麗·百濟地域(住)民에 대한 考察」, 『淸溪史學』 15, 청계사학회, 2001; 김창겸, 「통일신라기 백제유민의 동향과 백제계승 의식」, 『백제유민들의 활동(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6)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신라사학회, 2020.

상당 부분 드러났다. 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기가 문무왕·신문왕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여러 시책이 7세기 후반에 집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8세기대 백제 고지와 그 지역민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제 유민 중 당으로 사민된 부류, 스스로 고구려·왜·당으로 이주한 부류,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부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원거주지에서 계속 삶을 영위하였다. 타국으로 옮겨간 백제 유민과 그 후손들은 점차 백제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갔으나, 백제 고지에 거주했던 백제 유민과 그들의 후손은 상대적으로 백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할 여지가 많았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제에 대한 인식은 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덕왕대 태어나 주로 경덕왕대 활동한 승려 진표가 백제인이라는 기록,⁷⁾ 신라 말 백제의 재흥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며 백제왕을 자칭한 견훤,⁸⁾ 백제 멸망 후 단절되었던 백제계 석탑이 고려시대에 건립되는 현상⁹⁾은 백제계승의식 내지 반신라 정서가 백제 고지 주민의 내면에 침잠해 있었으며, 그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는 삼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이른바 ‘민족융합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신라인과 비교하여 차별이 엄존하였기에,¹⁰⁾ 신라 왕경인들 상당수가 백제 고지와 그 지역민에 대해 차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문무왕 14년(674) 진골 귀족 중 일부를 5소경과 9주로 옮겨 살도록 한 조치,¹¹⁾ 김인문 가문이 웅천주에 식읍을 소유한 사례,¹²⁾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통일신라 시기 熊州의 지방관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는 金陽武·金奉昌 부자의 부인이 웅주에 위치한 사

7) 『宋高僧傳』 권14,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釋眞表者, 百濟人也.”

8)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庾信卷土, 歷黃山至泗沘, 與唐兵合攻百濟滅之. 今予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9) 백제계 석탑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에 관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9, 9~15면 참조.

10) 노중국, 앞의 책, 355~363면; 金壽泰, 앞의 1999(a) 논문; 김창겸, 앞의 논문, 326~340면. 다만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 간에 차별대우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최희준, 앞의 논문, 94~98면 참조.

1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하) 외관,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 出居於五京九州.”

12) 金壽泰, 「羅唐關係의 變化와 金仁間」, 『白山學報』 52, 백산학회, 1999(b), 675~679면.

찰의 비구니가 되어 그 지역의 불교 전통을 신라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최근의 연구¹³⁾ 등을 참고한다면, 백제 고지 지역에서 신라인-백제 유민 간에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위계 관계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822년 김헌창이 웅천주를 중심으로 한 백제 고지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아 반신라 정서를 지닌 토착 세력과 일반 농민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짐작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¹⁴⁾

이념적 지향과 달리 현실적·구조적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백제 유민의 불만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신라 조정은 백제 고지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신문왕~경덕왕대 상서물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서물을 헌상하였는데, 웅천주·완산주·무진주의 헌상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상서물 현상이 신라 조정에서 요구한 충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즉 신라 조정이 백제 고지에 충성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상서물의 헌상으로 이어진 것이다.¹⁵⁾

이를 통해 신라 조정은 신문왕대 이후에도 백제 고지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야를 더 넓혀 8세기에 시행된 신라의 백제 고지 지배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경덕왕대 효를 실천한 熊川州人 向德을 포상한 사실과 熊川州停에 장군 3인을 加置한 사안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신라인들의 발해 인식에 주목하여 경덕왕대 신라 조정이 백제 고지의 동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배경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향덕에 대한 효행 포상 기록 검토

경덕왕대에는 지방제도 개편과 관제 개혁이 단행되었고 군사제도의 개혁, 국학과

-
- 13) 金昌錫, 「공주 舟尾寺址와 ‘阿尼’ 명문석편에 관한 고찰」, 『목간과 문자』 15, 한국목간학회, 2015; 김창식, 「공주 舟尾寺址와 신라의 熊州 지배」, 『百濟文化』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8.
- 14) 洪承基, 「後三國의 분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1989, 59~65면; 黃善榮,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부산사학회, 1998, 6~10면.
- 15) 金瑛河, 「新羅 中代의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研究』 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163~165면(『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재수록, 222~225면).

근시 기구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방면에서 체제 정비가 시도되었다. 그중 백제 고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아래의 사료가 있다.

A-①.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熊川州의 向德은 가난하여 봉양할 수 없으니 다리 살을 베어 그의 아버지에게 먹였다. 왕이 듣고 자못 후하게 하사하고 또 마을에 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4년 봄).¹⁶⁾

A-②. 向德은 熊川州 板積鄉 사람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善이고 字는 潘吉인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여 향리에서 그의 행실을 받들었다. 어머니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向德도 역시 孝順으로 당시에 칭찬을 받았다.

천보 14년 을미(755)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았다. 부모가 굶주리고 병이 났으며 어머니는 종기까지 나서, 부모가 모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向德은 밤낮으로 옷을 풀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위안하였으나 봉양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게 하고, 또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내니 모두 평안하게 되었다.

鄉司가 州에 보고하고 주는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하교하여 租 300곡과 집 한 채, 口分田 약간을 내려주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비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여 드러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곳을 孝家라고 부른다(『삼국사기』 권48, 열전8, 向德).¹⁷⁾

A-③. 웅천주에 向得 舍知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해 흉년이 들어 그의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向得은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 州의 사람들이 사실을 갖추어 아뢰니, 경덕왕은 租 500석을 상으로 내렸다(『삼국유사』 권5, 효선9,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¹⁸⁾

사료 A는 경덕왕 14년(755) 웅천주에 살고 있던 向得이 부모에게 행한 효행을 전하는 기사이다. 흉년이 들어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자, 向得은 부모의 굶주림을

16) “穀貴民饑。熊川州向德，貧無以爲養，割股肉，飼其父。王聞，賜賚頗厚，仍使旌表門閭。”

17) “向德熊川州板積鄉人也。父名善，字潘吉，天資溫良，鄉里推其行。母則失其名。向德亦以孝順，爲時所稱。天寶十四年乙未，年荒民饑，加之以疫癘。父母飢且病，母又發癰，皆瀕於死。向德日夜不解衣，盡誠安慰，而無以爲養。乃割腓肉以食之，又吮母癰，皆致之平安。鄉司報之州，州報於王。王下教，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命有司立石紀事，以標之。至今，人號其地云孝家。”

18) “熊川州有向得舍知者，年凶，其父幾於餓死，向得割股以給養。州人具事奏聞，景德王賞賜租五百碩。”

면하기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고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어 병을 낫게 하는 효행을 실천하였다. 이를 보고 받은 경덕왕은 향덕에게 포상을 내리고旌閭하였다.

향덕에 대해 『삼국유사』는 ‘向得 舍知’로 밝히고 있다.舍知는 신라 17관등 중 13위에 해당하는데, 포상으로 하사받은 것일 수 있다.¹⁹⁾ 내물왕 2년 孝悌에 남다른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 職 1급을 사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²⁰⁾ 당에서 孝義로서旌門을 세워 표창한 자에게 從9品上을 수여한다는 규정도 참고가 된다.²¹⁾

그러나 포상 내역에 관등 사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덕에 대한 포상이 훗날 효행 포상의 기준이 되는데,²²⁾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된 효행자 중 포상으로 관등을 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舍知는 향덕이 본래 소지하고 있던 관등인 것이다. 그렇다면 향덕의 가계는 경제적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평민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일정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²³⁾

향덕의 출신과 관련하여 백제 유민의 후예일 가능성이 큰데, 선조가 신라 왕경인으로 백제 고지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왕경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소경·주·현 단위에서 신라인의 이주와 거주가 확인된다.²⁴⁾ 그런데 향덕은 웅천주 판적향에 거주하였다. 신문왕대 전국적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일정한 기준의 전정과 호구를 갖춘 지역은 현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향이나 부곡으로 삼았다고 한다.²⁵⁾ 따라서

19) 조인성, 「통일에서 분열로-후백제의 성립 배경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2, 신라사학회, 2018, 10면.

2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2년 봄, “發使撫問鰥寡孤獨,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賜職一級.”

21)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凡孝義旌表門閭者, 出身從九品上敘.”

22) 『삼국사기』 권48, 열전8, 성각, “國王以熊川州向德故事, 賞近縣租三百石.”

23) 향덕이 소지한 관등 舍知를 통해 그가 적어도 4두품의 신분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며(尹龍憐,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 11, 백제문화연구소, 1978, 2~3면(「8세기의 효자, 향덕과 그 유적-백제고지(故地)에 대한 유교적 교화책」,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재수록, 72면), 더 나아가 次村主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김수태, 「『삼국유사』 ‘향덕 사지’ 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a), 99면).

24) 하일식,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篇籍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25) 노중국, 앞의 책, 351~354면.

관직향은 신라가 백제 고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현을 설치하기에 전정과 호구가 영세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경인들이 주로 이주한 지역은 지방 지배의 거점이 되는 곳이었으며, 백제 고지에 설치된 향에 신라인들이 이주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덕은 백제 유민의 후예로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사료 A에서 주목할 점은 국왕이 향덕의 효행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A-②에 따르면 鄉司에서 州로 보고하고, 주는 다시 왕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鄉→州→王’의 보고계통이 드러나는 것이다.²⁶⁾ 다만 지방관에게 보고계통을 통해 효행 사례를 중앙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향덕 이후의 효행 사례를 보면, 향덕과 비슷하게 割股 행위로 효를 행한 성각의 경우는 대신 각간 김정신과 이찬 김주원이 국왕에게 아뢰어 포상이 이루어졌다.²⁷⁾ 손순의 효행은 효행을 통해 얻은 石鐘 소리가, 지은의 효행은 효종량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개가 되어 왕에게 전해졌다.²⁸⁾ 모두 효행이 행정계통을 통해 보고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덕왕대 지방관이 행정계통을 통해 효행 사례를 중앙으로 보고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학은 중고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정치이념으로 점차 자리 잡아 갔으며 유교 윤리도 보급되었다.²⁹⁾ 유교 덕목 중 忠과 信이 우선되었기에 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³⁰⁾ 『孝經』이 법흥왕대 국가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³¹⁾ 염두에 둔다면 중고기에도 유교적 효 관념이 확산되었다고 추정된다. 중대에 들어서는 유학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립되고, 국학에서 필수로 익혀야 하는 경전으로 『論語』와 『孝經』을 설정하여 충과 효를 중심으로 한 유가 윤리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였다.³²⁾ 신라 중대에 유교적 효행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³³⁾

26)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29면.

27) 『삼국사기』 권48, 열전8, 성각.

28) 『삼국사기』 권48, 열전8, 효녀지은; 『삼국유사』 권5, 효선9, 孫順埋兒 興德王代·貧女養母.

29) 李晶淑, 「中古期 新羅儒敎의 性格」, 『白山學報』 58, 백산학회, 2001;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대구사학회, 2008.

30) 李基白, 「儒敎 受容의 初期形態」,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02~204면.

31) 盧鏞弼, 「신라시대 『孝經』의 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究』, 한국사학, 2007, 213~217면.

적어도 왕경에서는 효가 사회적 윤리로 자리 잡혔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효행에 대한 국가적 포상이 8세기 중반에서야 처음 시행되었다. 효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효행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덕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기 전, 경덕왕은 敎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유교적 효행을 포상할 것임을 천명하고 지방관에게 관할 지역의 효행자를 추천하도록 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효행자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향덕에 대한 포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덕왕이 효행자를 포상한 목적에 대해 초기 연구는 전제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화정책의 일환이자 재이가 빈발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이해하였다.³⁴⁾ 후속 연구들도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 지기에, 효행에 대한 포상은 효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왕권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³⁵⁾ 이는 포상의 주체가 국왕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 중대 왕권의 정치적 지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다.

한편 8세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다양한 대응책이 추진되었다.³⁶⁾ 경덕왕 13년(754) 8월에 가뭄이 들고 황충이 발생하였는데,³⁷⁾ 그 영향으로 다음해 봄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기에 이르렀다(사료 A-①·②). 이를 향덕에 대한 포상과 연결 하는 견해가 있다. 빈발하는 재해 속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효행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었다는 것인데, 사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³⁸⁾

32) 김영하, 앞의 책, 211~217면; 이현주, 「신라 효경의 수용과 활용」, 『韓國思想史學』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122~125면.

33) 윤용혁, 앞의 책, 83~84면; 李熙德,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一潮閣, 1984, 182면.

34) 윤용혁, 앞의 논문, 6면.

35) 盧鏞弼, 앞의 책, 221~241면; 김영하, 앞의 책, 215~216·232~234면; 김수태, 앞의 2009(a) 논문, 101~103면; 이현주, 앞의 논문, 120~130면.

36) 신라 중대 재해의 발생과 조정의 대책에 대해서는 李基峰,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變動」,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12~60면 참조.

37)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3년 8월, “旱蝗.”

38) 김수태, 앞의 2009(a) 논문, 104~107면; 李基峰, 앞의 박사학위논문, 45면.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향덕이 포상을 받은 배경이 밝혀졌다. 다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유교 윤리의 확산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면 포상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효행담이 조속히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³⁹⁾ 재해의 대책으로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경덕왕 13·14년 재해와 기근이 발생한 지역은 사료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방증한다.⁴⁰⁾ 따라서 향덕의 경제적 처지는 향덕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농민층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⁴¹⁾ 따라서 다른 지역민이 아닌 ‘熊川州人’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서 향덕의 출신지인 웅천주에 착목하여 백제 고지의 동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에 눈길이 간다. 백제 유민의 후손들에게 백제회고의식 내지 반신라 정서가 잠재되어 있었고, 이것이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표출될 것을 우려하여 백제 고지의 민심을 위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⁴²⁾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신라 하대에 지배체제가 동요하고 농민의 몰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왕정에 거주하는 순순과 지은에게 효행 포상이 실시될 뿐 백제 고지 지역민에 대한 효행 포상은 없었다. 따라서 백제 고지의 동향에 대해 경덕왕대 신라 조정이 관심을 가지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문의 해결은 4장으로 잠시 미루어두고, 다음 장에서는 경덕왕대 백제 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 다른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

39) 참고로 조선시대 광해군대와 인조대에는 임진왜란, 반정, 병자호란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효자, 충신, 열녀 등 유교 윤리를 실천한 자들에 대한 旌表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표 대상자의 수가 매우 많아서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될 정도였다고 한다(朴珠, 「17세기 旌表政策에 대한 研究」,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40) 경덕왕 6년 가뭄이 들어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자 사자를 10도로 보내 안무하였다. 10도라는 표현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李基峰, 앞의 박사학위논문, 45면). 또한 경덕왕대 溟州의 경계 지역에 흉년과 기근이 발생했음도 확인된다(『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41) 한준수,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213~214면.

42) 金壽泰, 「統一新羅期の 公州」, 『공주의 역사와 문화』, 公州大學校 博物館·忠淸南道 公州市, 1995, 211면; 金甲童, 「百濟遺民의 動向과 羅末麗初의 公州」, 『역사와 역사교육』 3·4, 웅진사학회, 1999, 315~316면; 윤용혁, 앞의 책, 79면; 조인성, 앞의 논문, 9~10면.

Ⅲ. 熊川州停 장군 3인 加置 기사 검토

아래 사료는 『삼국사기』 직관지(하) 무관조 가운데 신라에서 장군의 총원, 각 부대별 장군의 정원, 임명 가능 관등의 범위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B. 將軍은 모두 36인이었다. 大幢을 관장하는 4인, 貴幢 4인, 漢山停 3인, 完山停 3인, 河西停 2인, 牛首停 2인이었다. 관등이 眞骨 上堂으로부터 上臣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 綠衿幢 2인, 紫衿幢 2인, 白衿幢 2인, 緋衿幢 2인, 黃衿幢 2인, 黑衿幢 2인, 碧衿幢 2인, 赤衿幢 2인, 靑衿幢 2인이었다. 관등이 진골 급찬으로부터 각간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3인을 더 두었다(『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하) 무관).⁴³⁾

먼저 장군의 총원을 36명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서 6정과 9서당의 각 부대별 장군의 정원과 임명 가능 관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3인을 더 두었다’(이하 ‘장군 加置’로 약칭)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서두의 장군 36명은 웅천주정에 加置한 3인을 제외한 숫자이다. 따라서 위 사료는 6정과 9서당의 장군 정원 규정을 기록한 원전자료와 웅천주정과 관련된 추가자료가 결합되어 서술된 것이다.⁴⁴⁾ 따라서 웅천주정은 6정, 9서당과 구분되는 별개의 군사조직으로 파악된다.

먼저 ‘장군 加置’ 시기부터 살펴보자. 위 사료는 경덕왕 때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삼국사절요』 권12, 경덕왕 18년(759) 2월조에 관제 개혁 기사를 열거하고 그 말미에 “熊川州停加置諸軍官三人”이라는 기록이 있다.⁴⁵⁾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 웅천주정 관련 기록은 각각 한 건밖에 없으므로, 『삼국사절요』 편찬자가

43)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靑衿幢二人. 位自眞骨級浪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44)李文基,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史料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15, 역사교육학회, 1990, 37면(『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4 재수록, 39면).

45) 李仁哲, 「8·9世紀 新羅의 支配體制」, 『韓國古代史研究』 6, 한국고대사연구회, 1993, 155면에서 “경덕왕 18년경에 웅천주정에 장군 세 명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 『삼국사절요』의 기록을 참고한 듯하다.

『삼국사기』의 ‘熊川州停加置三人’에 ‘諸軍官’을 추가하여 옮긴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군 36명은 6정과 9서당에만 해당할 뿐이기에, 『삼국사절요』 편찬자는 웅천주정에 加置된 3인을 장군으로 볼 수 없다고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삼국사절요』 경덕왕 18년(759) 2월조에 배치된 것은 별도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국사절요』 편찬자가 경덕왕대 관제 개편과 지방군제 개편이 함께 시행되었다고 추정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경덕왕 16년(757) 시행된 지방제도 개혁을 간과한 것이다. 이때 9주의 명칭이 변화되는데, 웅천주는 熊州로 개명된다.⁴⁶⁾ 따라서 웅천주정은 웅천주가 웅주로 개명되는 757년 12월 이전에 존재한 군사조직이며,⁴⁷⁾ ‘장군 加置’ 시기도 지방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으로 보아야 옳다.

구체적인 시기를 추적할 단서가 되는 것은 ‘加置’라는 표현이다.⁴⁸⁾ 『삼국사기』 직관지(하) 무관조는 부대별 군관의 정원 규정은 상세하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장군 加置’ 기사 외에는 찾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직관지(상)에는 신라의 관부별 관직 설치와 인원 규정을 기재하면서 관원의 정원 변동도 서술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예컨대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眞興王五年, 加一人. 太宗王六年 又加一人.”과 같이 처음 설치했을 경우는 ‘始置(置)’, 증치할 경우는 ‘加+증원수’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직관지(상)에 일관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처음 설치할 경우에는 ‘始置(置)+관부명/관직명’으로 표기하여 직관지(상)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관원 증원 사례를 보면 조금 다르게 서술한 곳이 눈에 띈다.

- C-①. 문무왕 18년(678) 정월 “加左右理方府卿各一員.”
- ②. 신문왕 8년(688) 2월 “加船府卿一人.”
- ③. 경덕왕 11년(752) 10월 “加置倉部史三人.”
- ④. 경덕왕 16년(757) 8월 “加調府史二人.”
- ⑤. 혜공왕 12년(776) 3월 “加倉部史八人.”

4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6년 12월.

47)李文基, 「景德王代 軍制改革的 實態와 新軍制의 運用」, 앞의 책, 368면.

48) 『삼국사기』 직관지의 미세한 표현 차이 속에서 사료 계통상의 차이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발췌 과정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李文基, 「『三國史記』 雜志의 構成과 典據資料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3, 한국고대사학회, 2006, 238면).

사료 C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관원 증원 사례를 모두 모은 것이다. 5건 중 4건은 ‘加+관부명/관직명+증원수’로 표기하고 있다(C-①·②·④·⑤). 그에 비해 경덕왕 11년(752) 창부에 史 3인을 증원한 기사만 ‘加’ 대신 ‘加置’로 표기하고 있다(C-③).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관원을 증원하면서 ‘加置’라는 표기법을 쓴 경우가 두 건인데, 모두 경덕왕대라는 사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신라에서 관제의 개편은 王敎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개별적인 교를 집성한 格이 찬술되어 성문화, 법전화되었다고 한다.⁴⁹⁾ 그리고 교를 집적한 格 또는 格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자료가 『삼국사기』 내 신라 관제 기록의 전거자료가 되었을 것이다.⁵⁰⁾ 그렇다면 C-③에서 창부에 史 3인을 ‘加置’했다는 표현은 교서의 것을 그대로 채록한 것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말하자면 신라에서는 관원을 증원할 때 대체로 ‘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경덕왕 11년 10월 교서에서는 ‘加置’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5년 후 調府의 史를 증원할 때는 ‘加’로 표현했으므로(C-④), ‘加置’는 경덕왕 11년에 사용된 이례적이고 독특한 용법인 셈이다.⁵¹⁾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장군 加置’ 시기도 경덕왕 11년(752) 10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웅천주정의 실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⁵²⁾ 그 가운데 경덕왕대 추진된 군제

49) 洪承佑,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259~262면.

50) 洪승우, 「『삼국사기』 직관지의 典據資料와 신라의 관제 정비 과정」, 『新羅文化』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321면.

51) 그런데 『삼국사기』 직관지(상)에서는 “倉部, …… 史八人, …… 景德王十一年加三人.”이라 하여 ‘加置’가 아닌 ‘加’로 표기하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직관지(상) 찬자가 확보한 전거자료에는 ‘加置’로 되어 있었는데,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加’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관지(하) ‘장군 加置’ 기록에 ‘加置’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직관지 전체에 통일적인 표기법이 존재했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직관지(상)의 찬자가 참고한 전거자료에 이미 ‘加’로 표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다. 신라본기와 직관지(상)의 중앙행정관부 관련 기록은 각각 저본자료가 달랐으며, 직관지(상)의 찬자는 신라본기에 전하는 중앙행정관부 관련 기록을 참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洪승우, 앞의 논문, 311~314면;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중앙행정관부 기록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83, 한국사연구회, 2018, 197~200면). 따라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직관지(상)을 편찬할 때 참고한 전거 자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2) 먼저 6정과 10정이 해체된 후 옛 백제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웅천주정이 설치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李仁哲, 앞의 논문, 155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10정 중 하나인 靑火停이 9세기 전반까지 존속한 흔적이 남아 있기에 웅천주에 소재한 古良夫里停이 폐지되고 웅천주정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6정이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군사조직인 ‘九州亭’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만하고 중복적인 지방군제에서 벗어나 통일적인 군사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9주의 州治에 동일한 성격의 군사조직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9주정’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 州亭은 평상시에는 도독·태수·仕臣 등 각급 지방관이 주치·군·소경 지역 등 통치지역을 小軍管區로 하여 관할 병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도독의 막료인 州助·長史와 실병 지휘관인 緋衿幢主·緋衿監, 師子衿幢主·師子衿幢監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웅천주정은 이러한 9주정 중 하나로, 웅천주의 주치에 설치된 지방군인 것이다.⁵³⁾

〈표 1〉 9주정 소속 군관 배속 현황

	사벌주정	삼랑주정	청주정	한산주정	우수주정	하서주정	웅천주정	완산주정	무진주정
장군							3		
비금당주	3	3	3	2	6	6	5	4	8
사자금당주	3	3	3	3	3	3	3	3	3

출전: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하) 무관.

위 표는 9주정 소속 군관의 배속 현황이다. 비금당주는 정마다 3~8명으로 편차가 있으며, 사자금당주는 각 정마다 3인으로 동일하여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비금당주 직속의 하급 군관인 비금감은 48인인데, 幢을 영솔하는 40인과 馬兵을 영솔하는 8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⁵⁴⁾ 여기서 당은 9주정을 의미하므로 비금당주 40인과 숫자가 동일함을 알 수 있어 9주정에 고루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자금당주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웅천주정이 추가 설치되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全德在, 「新羅下代 鎮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국방군사연구소, 1997, 49면), 6정 중 한산정·우수정·하서정·완산정은 중고기 지방제도를 근간으로 성립된 군사조직으로 8세기에 창설된 웅천주정과 같은 범주의 군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10정의 명칭이 주명으로 개칭되면서 古良夫里停이 웅천주정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는데(한준수, 앞의 책, 227~228면), 주둔지역의 지명을 딴 音里火停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한산주에 위치한 南川停과 骨乃斤停의 군단명 개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3) 이상의 경덕왕대 ‘九州亭體制’의 성립과 운용에 대해서는李文基, 앞의 책, 367~371면과 400~406면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54)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하) 무관, “緋衿監, 四十八人, 領幢四十人, 領馬兵八人.”

의 직속 하급 군관인 사자금당감은 30인인데,⁵⁵⁾ 왕도에 배속된 사자금당주 3인과 9주정에 배속된 사자금당주 27인을 합한 숫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자금당감은 사자금당주와 마찬가지로 각 9주정에 3인씩 배속되어 있었던 것이다.⁵⁶⁾ 말하자면 9주정은 비금당주·비금감, 사자금당주·사자금당감의 지휘체계가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9주정이 9주를 단위로 하는 통일적인 군제이기에 일원적 지휘체계가 구축되고 군관의 편제가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9주정 가운데 장군이 배치된 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웅천주정이 유일하다. 삼국통일 이후 성립한 9서당과 10정의 군관 조직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통일적인 지방군사조직의 수립이라는 경덕왕대 지방군제 개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장군을 제외한 웅천주정 소속 군관이 다른 주정의 소속 군관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도 아니기에, 9주정 설치 처음에는 웅천주정도 다른 주정과 마찬가지로 장군이 배속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덕왕대 웅천주정에 장군이 두어진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⁷⁾

그러면 경덕왕 11년에 웅천주정에만 장군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중고기에 장군은 평상시 장군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전시출전 상황에서 대당과 정의 각 부대 장군직에 임명되어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군령권을 행사하며 관할 부대를 지휘하였다.⁵⁸⁾ 성덕왕대 발해와의 전쟁을 앞두고 장군을 임명한 기록을 보건대,⁵⁹⁾ 장군의 운용 방식은 중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웅천주정의 장군을 이해해 본다면, 웅천주정의 장군직은 평시에는 편제만 되어 있고, 전시 출정과 같은 대규모의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할 상황에서 웅천주정 장군이 임명되어 웅천주 관내 군사력을 결집하여 지휘했다고 할 수 있다.⁶⁰⁾

55)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하) 무관, “師子衿幢監, 三十人, 位自幢至奈麻爲之.”

56) 이상의 9주정 소속 군관의 배속 현황에 대해서는李文基, 앞의 책, 369~371면에 의거하였다.

57)李文基, 앞의 책, 401면에서 웅천주정에 3인의 장군을 설치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을 지적하면서, 당시의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한 임시적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현실적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58)李文基, 앞의 책, 191~197면·297~311면.

5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1년 12월, “以角干思恭伊飡貞宗允忠思仁, 各爲將軍.”;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開元二十一年, 大唐遣使教諭曰, 靺鞨渤海, 外稱蕃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 相爲犄角. 聞有舊將金庾信孫允中在, 須差此人爲將. 仍賜允中金帛若干. 於是大王命允中弟允文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

‘장군 加置’가 경덕왕대 대규모 전시 출정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한다면, 대발해·일본 대책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8세기 전반 신라와 발해·일본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군사 충돌로 이어졌다.⁶¹⁾ 대발해·일본 관계의 악화에 따른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축성사업, 변경지역의 영역화, 요충지에 군사 거점 설치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책이 추진되었다.⁶²⁾

그런데 ‘장군 加置’를 대발해·일본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기에는 석연하지 않다. 만약 발해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것이라면 발해와 인접한 한산주정, 우수주정, 하서주정에 장군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대규모 출정이 필요하다면 삼랑주정, 청주정, 하서주정에 장군이 두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발해·일본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웅천주정에만 장군이 두어졌다. 그리고 경덕왕대 시행된 대발해·일본 군사 대비책은 주로 760년대 시행되었으며, 그것도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축성과 같이 군사 충돌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웅천주정에 장군을 설치한 배경은 대외적 요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웅천주와 그 인근 지역, 즉 백제 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이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는 752년이라는 시점에 신라 조정이 웅천주를 중심으로 한 백제 고지의 동향에 의구심을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웅천주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웅천주를 통제·감시하기 위해 웅천주정에 장군을 加置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⁶³⁾ 또 다른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해가 웅천주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민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곤궁했던 하대에 백제 고지 지역민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한 사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0) 이문기, 앞의 책, 405~408면.

61) 731년 일본의 병선 3백 척이 신라의 변경을 습격한 사건과 733년 신라가 원정군을 편성하여 발해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62) 이문기, 앞의 책, 344~353면.

63) 김갑동, 앞의 논문, 315~316면; 김수태, 앞의 2009(a) 논문, 107면 각주 48).

IV. 신라의 발해 인식 변화와 백제 고지 정책의 시행

이상에서 경덕왕대 백제 고지를 대상으로 효행자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었으며 대규모 군사 동원을 전제로 웅천주정에 장군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백제 고지와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백제 고지에 대한 정책이 ‘750년대 초중반’이라는 시점에 잇달아 시행된 배경을 밝힐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두 정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라 지배층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검토하면서 이상의 의문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

백제부흥운동이 종결된 후 신라의 통치체제에 들어간 백제 유민의 집단적인 저항은 사료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684년 고구려 유민이 지금의 익산 지역에서 일으킨 반란⁶⁴⁾에 백제 유민이 가세한 정황이 발견된다. 이는 반란 진압 후 百濟殘民으로 구성된 청금서당이 창설되고 백제 고지에 대한 군현제 개편이 단행된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⁶⁵⁾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사전에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자가 반란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고구려 유민의 반란이 백제 유민을 자극하여 반란이 익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백제 고지로 확산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9서당의 하나인 황금서당이 출전하는 모습과 펄실과 김령운이 전장에서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⁶⁶⁾은 신라인들이 느꼈을 위기감을 반증한다. 반란 진압 후 신라 지배층은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이 연동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을 법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라인들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심이 간다. 신라와 발해의 첫 공식 교섭은 다음 기록에 남아 있다.

6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1월.

65) 李馨慙, 「신문왕대 報德城民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29~33면; 정원주, 「안승의 항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 1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79~81면. 684~686년 고구려인과 백제인의 일본 이주가 백제 고지에서 발생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참고가 된다(申恩伊, 「報德國의 建國과 그 意味」,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18~19면).

66) 『삼국사기』 권47, 열전7, 취도·김령운.

D. (발해는) 처음 도움을 세우고 와서 이웃의 원조에 의지하였습니다. 그 후 장 대조영은 비로소 저희 나라의 제5품 대아찬을 받았습니다(『東文選』 권33, 謝不許北國居上表).⁶⁷⁾

사료 D는 발해가 건국 직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전하고 있는데, 신라는 대조영에게 대아찬을 수여하며 우호 관계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당시 신라인들이 발해의 연원과 종족 구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발해에 대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세기 후반 신라 지배층은 ‘삼한일통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의 영역과 주민을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려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다.⁶⁸⁾ 신문왕이 683년 안승에게 김씨 성을 하사하고 왕경으로 옮겨 살게 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이러한 정책의 하나였다. 신라로 내투한 고구려 유민들에게 부용국의 지위마저 용인하지 않고 온전히 신라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진압되면서 이념적으로 고구려는 완전히 신라로 통합되었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신라인들이 ‘삼한일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부흥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는 안승과 대조영에 대한 신라의 대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670년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면서 ‘高句麗嗣子’, ‘先王正嗣’라는 표현을 쓰며⁶⁹⁾ 안승이 고구려 왕실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에 비해 대조영은 酋長이라 지칭하였다. 비슷한 시기 신라인들의 ‘추장’에 대한 인식은 『삼국사기』素那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달성의 동향을 정찰한 말갈 첩자가 귀환하여 ‘추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⁷⁰⁾ 이때 말갈은 당군에 동원된 만주 지역의 말갈로 여겨지기에,⁷¹⁾ 여기서 ‘추장’은 통일된 정치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치하는 수십 부로 나누어

67) “初建邑居，來憑隣援。其酋長大祚榮，始授臣蕃第五品大阿餐之秩。”

68)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한국사연구회, 1982, 134~138면(『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재수록, 81~88면).

6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7월, “遣沙湌須彌山，封安勝爲高句麗王。其册曰，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先王正嗣，唯公而已，主於祭祀，非公而誰。”

70) 『삼국사기』 권47, 열전7, 소나, “上元二年乙亥春，阿達城太守級滄漢宣，教民以某日齊出種麻，不得違令。靺鞨諜者認之，歸告其酋長。”

져 있던 말갈⁷²⁾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역 집단의 장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조영을 ‘추장’이라 지칭한 데서, 신라인들이 그를 말갈 부락을 영도하는 인물로 인식하였으며 발해를 말갈이 주도하여 세운 국가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⁷³⁾ 물론 발해 사신을 통해 대조영이 고구려 옛 장수였음을 인지했을 것이고⁷⁴⁾ 발해 건국 세력에 고구려 유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해는 말갈과 관련된 국가로 규정되었으며, 고구려와 발해의 연관성은 신라 지배층 중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파악하고 있던 정보였다고 이해된다.

730년대 전반 당과 발해는 무력 충돌을 하는데, 신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해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신라는 발해를 ‘말갈’, ‘발해말갈’, ‘발해’로 지칭하고 ‘凶殘’, ‘夷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⁷⁵⁾ 양국 관계가 대립적이었기에 이러한 표현은 당연한 듯 보이는데,⁷⁶⁾ 발해를 말갈과 동일한 계통으로 인식한 결과로 이해하기도 하고⁷⁷⁾ 발해를 군자국인 신라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된 夷狄國으로 폄하하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⁷⁸⁾ 이유를 막론하고 730년대 전반에 신라인들이 발해를 고구려와 연관 지어 인식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71) 노태돈,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97면(『고구려 발해사 연구』, 지식산업사, 2020 재수록, 294면).

72) 『구당서』 권199하, 열전149하, 북적 말갈,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師.”; 『신당서』 권219, 열전144, 북적 흑수말갈, “離爲數十部, 酋各自治.”

73) 趙二玉, 「8世紀 前半 新羅와 渤海의 對立關係와 그 要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289~291면(『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2001 재수록, 113~114면)에서 추장이 유목민족의 부족장을 의미하므로 신라인들은 발해를 말갈부락, 대조영을 말갈의 추장으로 인식했다고 하였다.

74) 『삼국유사』 권1, 기이1, 말갈발해, “又新羅古記云, 高麗舊將祚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伯山南, 國號渤海.”에서 신라인들이 대조영의 출신을 고구려 장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앞의 2020 책 재수록, 228면).

7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2년 7월·33년 정월;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76) 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韓國史論』 1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77) 조이옥, 앞의 책, 119~122면.

78) 전덕재,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研究』 4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45~46면.

이후 신라와 발해는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교류를 확대하여 갔다. 문왕이 737년 즉위하여 738년 당의 책봉을 받고 친당파를 사면하면서 대당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⁷⁹⁾ 이로써 당을 매개로 했던 발해와 신라의 갈등도 해소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라는 새롭게 영유한 패강 이남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 위한 작업을 우선하였기에⁸⁰⁾ 발해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았다. 신라는 757년경 정천군에 炭項關門을 축조하여⁸¹⁾ 발해와의 교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관문은 공식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관리하는 동시에 사사로운 월경과 교역,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항관문의 존재는 상시적이지는 않아도 신라와 발해 양국 일반민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⁸²⁾

740년대~50년대 전반 신라·발해 간 왕래가 확대해지면서⁸³⁾ 발해에 관한 정보가 신라로 유입되었을 것이며, 여기에는 발해의 연원과 종족 구성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자들은 공적 교류에 관계된 일부 관료와 발해인과 접촉이 비교적 용이했던 신라 동북 지역민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당시 발해는 對日 교섭에서 고구려계승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727년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의 옛 터를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여, 발해인들이 고구려에 대해 뚜렷한 계승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⁸⁴⁾

79) 김종복, 「발해 폐왕·성왕대 정치세력의 동향」,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125~128면(『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재수록, 139~142면).

8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5년 11월, “遣伊滄允忠思仁英述, 檢察平壤牛頭二州地勢.”;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7년 8월, “遣阿滄貞節等, 檢察北邊. 始置大谷城等十四郡縣.”

81)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삭주,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取之. 景德王改名, 築炭項關門. 今湧州, 領縣三.” 경덕왕 16년(757) 전국적인 지명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기록의 서술방식으로 보아 탄항관문 축조는 지명 개정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李文基, 「統一新羅期の「北鎮」과 軍事的 位相」, 『九谷黃鍾東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4, 21면).

82) 윤재운, 「발해 중경시기 대외관계의 양상과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205~206면에서 신라도를 통한 민간 차원의 교섭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83) 송기호,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新羅史學報』 45, 신라사학회, 2019, 18~19면에서 740년대 이후 발해와 신라를 잇는 역로가 개설되었으며, 점차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757년 이후 어느 시점에 왕래의 상징인 탄항관문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84) 노태돈, 앞의 2020 책, 209면.

따라서 신라가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발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730~740년대에는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이 王城國을 칭하자 일본이 사신을 방환하고(735) 신라가 調를 土毛로 개칭한 것에 일본이 반발하여 사신을 大宰府에서 돌려보내는(743) 등 양국 관계가 원활히 전개되지 못하였기에, 현안에서 비쳐있는 발해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는 어려웠다고 짐작된다. 740년 일본 조정의 신년 의례에 발해 사신과 新羅學語가 함께 참여한 것이 신라가 발해를 고구려계승국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⁸⁵⁾ 일본어 습득을 위해 파견된 소수의 新羅學語⁸⁶⁾와 발해 사신의 일회적 만남이 신라인의 발해 인식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752년 김태림이 이끈 700여 명의 대규모 신라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續日本紀』에 수록된 관련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예부터 조공국의 지위에 있었으며, 왕자 김태림은 경덕왕을 대신하여 일본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고 한다.⁸⁷⁾ 일본학계는 이를 문면 그대로 받아들여 김태림이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蕃禮를 행했다고 본다.⁸⁸⁾ 그러나 신라를 번국으로 설정하여 일본을 우위에 두려는 인식에 의거해 왜국, 윤색된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⁸⁹⁾ 아래 사료를 통해 신라 사절단이 조공국의 위치에서 행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85) 趙二玉,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新羅文化』 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12~14면.

86)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9년 11월 을미, “新羅遣沙湌金若彌大奈末金原升進調. 則習言者三人, 從若彌至.”; 『續日本紀』 권23, 天平寶字 4년 9월 계묘, “新羅國遣級湌金貞卷朝貢 …… 又無知聖朝風俗言語者, 仍進學語二人.” 두 기록을 보건대 신라가 일본어를 습득을 목표로 파견한 新羅學語는 통상 2~3명이었다고 여겨진다.

87) 『속일본기』 권18, 天平勝寶 4년 6월 기축, “新羅王子金泰廉等拜朝, 并貢調. 因奏曰, 新羅國王言日本照臨天皇朝廷. 新羅國者, 始自遠朝, 世世不絕, 舟楫並連, 來奉國家. 今欲國王親來朝貢進御調, 而顧念, 一日無主, 國政絕亂. 是以, 遣王子韓阿湌泰廉, 代王爲首, 率使下三百七十餘人入朝, 兼令貢種種御調. 謹以申聞.”

88) 752년 김태림 사절단의 파견 목적 및 외교 의례에 대한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검토는 강은영,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752년 金泰廉 使行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31, 일본사학회, 2010, 53~54면 참조.

89) 延敏洙, 「日本律令國家의 新羅觀의 형성과 실태」, 『日本歷史研究』 33, 일본사학회, 2011; 강은영, 「고대 일본의 對新羅關係와 신라의 국서문제」, 『韓國史研究』 179, 한국사연구회, 2017, 59면.

E. (領唐客使 등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견당사 粟田朝臣真人 등이 楚州로부터 출발하여 長樂驛에 이르자 5품 舍人이 勅을 전하며 위로하였는데, 이때 절하며 사례하는 예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라 조공사 왕자 태림이 入京하는 날 官의 사신이 命을 선포하고 迎馬를 내려 주었는데, 사신의 무리는 고삐를 거두고 말 위에서 답례하였습니다. 다만 발해국의 사신만이 모두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하고 舞蹈하였습니다. 이제 唐客을 인솔하는 데 어떤 예에 준거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⁹⁰⁾(『속일본기』 권35, 寶龜 10년 4월 신묘).

사료 E는 779년 대재부에 도착한 당 사신을 인솔하는 領唐客使가 일본의 견당사, 김태림이 이끈 신라의 견일본사, 발해의 견일본사의 사례를 들면서 당 사신에게 어떤 儀禮를 적용해야 하는지 중앙에 문의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라 사절단은 入京儀禮에서 사자가 천황의 명을 선포할 때 馬上에서 답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태림이 신라가 일본보다 상위 국가라는 인식을 지녔으며 의례에서 이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된다.⁹¹⁾ 반면 발해 사신은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하고 舞蹈했다고 하는데, 신하의 예를 취한 것이다.⁹²⁾

일본은 8세기에 율령국가 체제가 성립되자 신라를 蕃國으로 법제화하고 외교 의례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752년 신라 사절단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답례한 것은 일본 측의 불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 일본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사료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방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천황이 김태림에게 신라 국왕이 친조를 하면 구두로 아뢰고 사신이 입조하면 표문을 지참하도록 요구하는데,⁹³⁾ 이는 唐禮를 도입하여 당-蕃國 관계를 일본-신라에 그대로 대응시킨 것이

90) “又奏曰，往時，遣唐使粟田朝臣真人等，發從楚州，到長樂驛，五品舍人宣勅勞問，此時未見拜謝之禮。又新羅朝貢使王子泰廉入京之日，官使宣命，賜以迎馬，客徒斂轡，馬上答謝。但渤海國使，皆悉下馬，再拜舞蹈。今領唐客，准據何例者。”

91) 近藤浩一, 「景德王代 王子 金泰廉의 日本派遣 事情」, 『韓國古代史探究』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106면; 朴南守, 「8세기 新羅의 동아시아 外交와 迎賓 체계」, 『新羅史學報』 21, 신라사학회, 2011, 157~158면; 아마다 후미토,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日」, 『大丘史學』 138, 대구사학회, 2020, 24~25면.

92) 772년 일본이 발해에 보낸 국서에 따르면, 일본은 727년 발해 무왕이 처음 사신을 파견했을 때 조공을 하였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속일본기』 권32, 寶龜 3년 2월 기묘, “賜渤海王書云, 天皇敬問高麗國王, …… 王之先考左金吾衛大將軍渤海郡王遣使來朝, 始修職貢.”). 발해 사신이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하고 舞蹈했다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인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⁹⁴⁾ 따라서 일본은 입경한 신라 사절단에게 외교 형식과 의례 전반에 걸쳐 번국의 예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일본은 신공황후의 정벌을 계기로 신라가 일본의 번국이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 근거로 내세웠다.⁹⁵⁾ 그런데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 말미에는 신라가 항복하자 고구려와 백제도 조공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전한다.⁹⁶⁾ 당시 일본은 발해와의 관계에서 일본과 고구려가 본래 군신 관계였는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발해도 일본의 蕃國으로서 臣禮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⁹⁷⁾ 일본은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을 이용하여 울령국가의 이념을 충족시키는 데 활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신공황후 이래로 삼국이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있으므로 신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공국의 예를 충실히 행하라는 요구를 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일본의 공식 외교 관계를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와 일본의 인식이 신라 사절단에 전달된 것이다. 이는 김태렴 등 사절단의 수뇌부에 한정되지 않고 平城京에 들어간 370여 명의 신라 사절단에도 유포되었을 것이다. 사절단이 참가하는 공식 외교 의례, 불교 행사, 교역 활동 등에서 일본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절단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 사절단은 평성경을 떠나 752년 7월 난파관을 거쳐⁹⁸⁾ 귀환 길에 오르는데, 752년 가을에는 신라 왕경에 도착하여 사행 결과를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때 일본이 발해를

93) 『속일본기』 권18, 천평승보 4년 6월 임진, “又詔, 自今以後, 國王親來, 宜以辭奏. 如遣餘人入朝, 必須令齋表文.”

94) 朴昔順, 「고대 일본의 대외관계 문서」, 『東方學志』 1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79면.

95) 『속일본기』 권18, 천평승보 4년 6월 임진, “是日, 饗新羅使於朝堂. 詔曰, 新羅國來奉朝廷者, 始自氣長足媛皇太后平定彼國, 以至于今, 爲我蕃屏.”

96) 『일본서기』 권9, 神功皇后 攝政前紀 仲哀天皇 9년 10월, “於是, 高麗百濟二國王, 聞新羅收圖籍, 降於日本國, 密令伺其軍勢. 則知不可勝, 自來于營外, 叩頭而款曰, 從今以後, 永稱西蕃, 不絕朝貢. 故因以, 定內官家屯倉. 是所謂之三韓也.”

97) 石井正敏 著, 임상선 역, 「日渤海交渉에서의 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에 대하여」,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1. 고구려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인식은 고구려 멸망 이후 안승이 이끈 고구려 유민 집단과 왜의 교섭에서 비롯된 것이다(盧泰敦, 「對渤海 日本國書에서 云謂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616~619면(앞의 2020 책 재수록, 253~257면).

98) 『속일본기』 권18, 천평승보 4년 7월 무진, “泰廉等還在難波館. 勅遣使賜絁布并酒肴.”

고구려계승국가로 인식하고 있던 정황도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752년 사절단은 전례에 없는 대규모였다. 사절단에 포함된 인적 구성도 관인, 상인, 승려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에 의해 ‘발해=고구려계승국’이라는 정보는 빠른 속도로 왕경 내에 확산되었을 것이며, 상인에 의해 지방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8세기 전반 백제 고지에는 자연재해의 빈발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농민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향덕처럼 지방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자들도 기근을 면하기 힘들었다. 하층민의 사정은 더욱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지배층은 ‘발해=고구려계승국’이라는 정보가 백제 고지 지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약 100년 전 멸망한 고구려가 발해라는 나라로 부활했다는 소식은 백제 고지 지역민의 회고 의식을 자극하고 백제부흥을 시도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소재였다. 또한 반신라적 세력이 백제 고지 지역민의 의식을 결집시켜 집단성을 형성하는 정치적 구호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즉 자연재해로 초래된 사회경제적 불만에 따른 반신라 정서가 ‘발해=고구려계승국’ 인식과 결합하여 백제부흥의식으로 轉化되는 것을 차단하고 백제 부흥을 기치로 내세운 반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웅천주는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백제 멸망 후 이 지역에서는 백제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당에 의해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어 신라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백제부흥운동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웅천주를 주목했을 것이다.

백제 고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지방관은 관할 지역의 지역민으로 편성한 군사를 이끌고 통치 지역을 지켜야 했다.⁹⁹⁾ 그리고 각 주에 주둔하고 있던 10정 부대가 1차적으로 반란 진압에 나섰을 것이다. 웅천주의 古良夫里停, 완산주의 居斯勿停, 무진주의 未多夫里停이 그것이다. 10정의 주둔지가 군사 기동로 및 교통로라는 점에서¹⁰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지만, 기병이 주축이 된 부대이기에 단독으로 전장에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10정 부대는 독립부대적 성격이 강하여 주 장관인 도독의 지휘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추정되기에,¹⁰¹⁾ 지휘 계통

99)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산·우두·삼량·패강·북원 등이 ‘舉兵自守’한 데서 알 수 있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100) 한준수, 앞의 책, 118~119면.

면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웅천주정에 장군이 두어졌다. 지역별 방어가 이루어지는 동안 웅천주정의 장군은 웅천주 관내 전체 군사력을 결집하여 보병 중심의 웅천주정을 행군 조직으로 재편성하고, 웅천주정과 10정 부대를 통합 지휘하면서 반란에 대처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웅천주정에 장군 3인을 둔 조직은 백제 고지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앞서 김태림이 귀국한 시기를 752년 가을로 보았으며, ‘장군 加置’는 倉部에 史 3인을 加置한 752년 10월에 함께 시행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장군 加置’는 김태림 사절단의 도착과 맞물리며 긴박하게 결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장군의 常住와 병력의 추가 배치 등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군 加置’가 신속하게 결정된 배경 중 하나였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웅천주정 장군직은 평시에는 편제만 되어 있고 출전 시 임명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웅천주정의 평시 조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다만 주요 방어 시설 점검이나 군사 대비 태세 강화와 같은 조치는 수반되었고 생각된다. 이는 웅천주에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신라 정세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더불어 반란과 같은 비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도 강구되어야 했다. 그것이 향덕에 대한 포상이었다. 경덕왕 2년(743)에 『어주효經』이 전해지는데,¹⁰²⁾ 이 책은 효가 충도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당 현종이 주석한 것이었다.¹⁰³⁾ 이를 계기로 부모에 대한 효를 통해 군주에 대한 충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재차 강조되었을 것이다. 효행이 궁극적으로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면, 효에 대한 포상은 충에 대한 포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향덕의 모습은 7세기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 순국한 인물을 연상시킨다. 경덕왕은 백제 고지 지역민에게 국왕과 國事に 목숨을 바치며 충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공자에게 포상이 있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¹⁰⁴⁾

101) 이문기, 앞의 책, 407~408면.

102)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2년 3월, “并賜御注孝經一部.”

103) 盧鏞弼, 앞의 책, 222면.

104) 향덕이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를 봉양한 행위는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유교적 효행과 거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신라 조정이 향덕의 행위를 효행으로 포상하는

결국 효행 포상은 유교 윤리를 확산시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왕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¹⁰⁵⁾ 따라서 효를 행한 ‘熊川州人’에 대한 포상은 백제 고지 지역에 효와 충의 가치를 보급해 백제부흥의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백제 고지에 대한 충의 요구는 상서물 헌상에서도 확인된다. 경덕왕대 상서물 헌상은 재위 12년·13년·15년, 총 세 차례 있었다.¹⁰⁶⁾ 신라 중대 상서물의 헌상은 중앙에서 지방에 충의 윤리를 요구한 데 따른 지방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⁰⁷⁾ 그렇다면 경덕왕 12년(753) 무진주에서 白雉를 헌상한 것은 신라 조정이 백제 고지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과 떨어져 생각하기 어렵다. 신라 조정은 백제 고지 지역의 충성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에 호응하여 무진주 도독은 상서물을 헌상하면서 무진주 지역민들이 신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이해된다.¹⁰⁸⁾ 그리고 경덕왕 15년 白狐를 바친 大永郎에게 南邊第一의 관위를 수여한 바와 같이, 무진주 지역은 충성에 대한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효와 충에 대한 포상을 보상책으로만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충의 결과가 포상이라면 불충은 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⁰⁹⁾ 백제부흥의식의 표출은 불충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신라 조정은 백제 고지 지역민에게 불충에 따른 처벌을 상기시켜 ‘발해=고구려계승국’ 인식이 야기할 수 있는 불온한 움직임을 차단

데에는 이러한 연유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05) 盧鏞弼, 앞의 책, 240면; 김영하, 앞의 책, 233~234면. 더 나아가 『孝經』을 통해 당의 ‘孝治天下’ 이념을 수용하였고 포상이라는 통치 행위를 통해 ‘忠孝一本’의 정치사상을 사회윤리로 확산시켰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이현주, 앞의 논문, 128~130면).

10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2년, “武珍州獻白雉.”; 동왕 13년, “牛頭州獻瑞芝.”; 동왕 15년 4월, “大永郎獻白狐, 授位南邊第一.”

107) 김영하, 앞의 책, 222~225면.

108) 경덕왕 13년(754) 牛頭州가 瑞芝를 헌상한 것은 고구려 고지 지역의 동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발해가 고구려계승국가라는 인식이 고구려 고지에 두어진 漢山州, 首若州, 河西州에 미칠 영향도 신라 조정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고지 지역에 대한 의구심이 상서물 헌상을 통한 충성 확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지역이 고구려 영역이었다는 인식은 9주를 신라·백제·고구려 각 3주씩 배분한 것에 따른 것이지 실제로는 6세기 중반 이래 대체로 신라의 영역으로 유지된 곳이다. 따라서 신라 조정의 관심은 백제 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여겨진다.

109) 충에 따른 유공자의 포상과 불충에 따른 처벌에 관해서는 김영하, 앞의 책, 219~221면 참조.

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신라 국왕에 대한 충성 여부에 따라 포상과 처벌이 있을 것임을 백제 고지 지역민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그들을 회유하는 동시에 통제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¹¹⁰⁾

V. 맺음말

이 글은 신라 지배층이 8세기 중반 웅천주로 대표되는 백제 고지 지역과 그 지역민을 회유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배경을 밝혀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신라는 752년(경덕왕 11) 9월에 설치된 지방군사조직 중 하나인 웅천주정에 장군 3인을 더 두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지방군사조직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성한다는 경덕왕대 군제 개편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규모 전시 출정에 대비한 것이었다. 한편 755년(경덕왕 14)에는 웅천주에 거주하고 있던 향덕에게 포상을 시행하였다. 효행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한편, 불충에 대한 처벌을 예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백제 고지 정책을 시행한 배경은 신라 지배층의 발해 인식과 관련이 깊었다. 신라 지배층은 처음에는 말갈이 주도하여 발해를 건국했다고 인식하였는데, 발해와 교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접경 지역인 동북 변경을 중심으로 발해를 고구려와 관련짓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 752년 김태림이 이끈 대규모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신라와 일본은 양국 관계에서 외교 형식과 의례 전반에 걸쳐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태림 사절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은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을 활용하여 울릉국가의 이념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이를 752년에 방문한 신라 사절단에도 적용하려 하였다. 신라 사절단이 귀국하여 외교 교섭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발해가

110) 여기서 경덕왕이 승려 진표를 궁중으로 불러 보살계를 받고 많은 보시를 했다는 기록이 참고가 된다(『삼국유사』 권4, 義解5, 眞表傳簡). 이는 ‘백제의 정신적 부흥’을 추구했던 진표를 회유하는 동시에 그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는데(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김수태, 「한국 고대사 속의 배제와 포용」, 『서강인문논총』 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b), 122~126면), 향덕에 대한 포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계승국가를 표방하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고 있음이 신라 조정에 공식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국한 사절단 일원에 의해 이러한 정보가 왕정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지방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대두되었을 것이다.

당시 백제 고지 지역민들은 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대우와 계속되는 자연재해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신라 조정은 백제 고지 지역민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이 ‘발해=고구려계승국’ 인식과 결합하여 백제부흥의식이 표출되는 것에 경계심을 가졌다. 750년대 초중반 신라 조정이 백제 고지와 그 지역민에 대해 통제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시행한 배경은 발해가 고구려계승국가라는 발해인들의 인식이 일본을 거쳐 신라로 유입되면서 신라인의 발해 인식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

『唐六典』

『舊唐書』

『宋高僧傳』

『新唐書』

『資治通鑑』

『日本書紀』

『續日本紀』

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盧鏞弼,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究』, 한국사학, 2007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일조각, 2003

노태돈,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_____, 『고구려 발해사 연구』, 지식산업사, 2020

윤용혁,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李基白 · 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4

李熙德,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一潮閣, 1984

趙二玉,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2001

한준수, 『신라중대 올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강은영,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752년 金泰廉 使行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31, 일본사학회, 2010

_____, 「고대 일본의 對新羅關係와 신라의 국서문제」, 『韓國史研究』 179, 한국사연구회, 2017

권덕영, 「백제 유민 禰氏 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近藤浩一, 「景德王代 王子 金泰廉의 日本派遣 事情」, 『韓國古代史探究』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金甲童, 「百濟遺民의 動向과 羅末麗初의 公州」, 『역사와 역사교육』 3 · 4, 웅진사학회, 1999

- 김선숙, 「統一新羅時代 地方行政體制下의 高句麗·百濟地域(住)民에 대한 考察」, 『淸溪史學』 15, 청계사학회, 2001
- 金壽泰, 「統一新羅期の 公州」, 『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대학교 博物館·忠淸南道 公州市, 1995
- _____, 「新羅 文武王代의 對服屬民 政策」,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 _____, 「羅唐關係의 變化와 金仁問」, 『白山學報』 52, 백산학회, 1999
-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 사지’ 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 _____, 「한국 고대사 속의 배제와 포용」, 『서강인문논총』 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김창겸, 「통일신라기 백제유민의 동향과 백제계승 의식」, 『백제유민들의 활동(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金昌錫, 「공주 舟尾寺址와 ‘阿尼’ 명문석편에 관한 고찰」, 『목간과 문자』 15, 한국목간학회, 2015
- 김창석, 「공주 舟尾寺址와 신라의 熊州 지배」, 『百濟文化』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8
-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대구사학회, 2008
- 朴南守, 「8세기 新羅의 동아시아 外交와 迎賓 체계」, 『新羅史學報』 21, 신라사학회, 2011
- 朴昔順, 「고대 일본의 대외관계 문서」, 『東方學志』 1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 朴珠, 「17세기 旌表政策에 대한 研究」,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 石井正敏 著, 임상선 역, 「日渤海交渉에서의 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에 대하여」,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1
- 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韓國史論』 1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 송기호,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新羅史學報』 45, 신라사학회, 2019
- 申恩伊, 「報德國의 建國과 그 意味」,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야마다 후미토,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日」, 『大丘史學』 138, 대구사학회, 2020
- 延敏洙, 「日本律令國家의 新羅觀의 형성과 실태」, 『日本歷史研究』 33, 일본사학회, 2011
- 윤재운, 「발해 중경시기 대외관계의 양상과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 李基峰,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 變動」,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 _____, 「統一新羅期の 「北鎮」과 軍事的 位相」, 『九谷黃鍾東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4

- _____, 『『三國史記』雜誌의 構成과 典據資料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3, 한국고대사학회, 2006
- 李仁哲, 「8·9世紀 新羅의 支配體制」, 『韓國古代史研究』 6, 한국고대사학회, 1993
- 李晶淑, 「中古期 新羅儒敎의 性格」, 『白山學報』 58, 백산학회, 2001
- 이현주, 「신라 효경의 수용과 활용」, 『韓國思想史學』 64, 한국사상학회, 2020
- 李馨愍, 「신문왕대 報德城民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전덕재,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研究』 4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 _____,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중앙행정관부 기록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83, 한국사학회, 2018
-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에 관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정원주, 「안승의 향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 1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 趙二玉,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新羅文化』 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조인성, 「통일에서 분열로-후백제의 성립 배경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2, 신라사학회, 2018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신라사학회, 2020
- 하일식,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篇籍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 洪承基, 「後三國의 分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1989
- 洪承佑,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홍승우, 「『삼국사기』 직관지의 典據資料와 신라의 관제 정비 과정」, 『新羅文化』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 黃善榮,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부산사학회, 1998

The Enforcement of Politics toward Old Territory of Baekje and Its Background in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of Silla Dynasty

Kim, Kang-hun

This article analyzes politics implemented toward old territory of Baekje in King Gyeongdeok era and examines its background through cognition on Balhae in Silla.

Silla's ruling class recognized Balhae as a country founded by Malgal. However, it changed in 752 when Kim Tae-ryeom Mission returned from Japan. Cognition that Balhae is successor of Goguryeo had rapidly spread in capital. This cognition began with Balhae and had flowed Silla via Japan.

The people of the old territory of Baekje were in poor socioeconomic conditions. Silla tried to suppress they have consciousness of succeeding Baekje by the information of 'Balhae is successor of Goguryeo'.

King Gyeongdeok had implemented control and conciliation policies. H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Janggun to counter a revolt in Woongcheonju-Jeong. In order to induce loyalty to the king, he rewarded Hyangdeuk handsomely for filial piety.

Key Words : King Gyeongdeok, Woongcheonju, Hyangdeuk, Woongcheonju-Jeong, Old Territory of Baekje, Cognition on Balhae in Silla

